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응

임실군, 2월 용역계약 완료·수탁기관 공개 모집

임실군이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 도시혁신사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와 구도심, 전통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쇠퇴한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계기반형 등 5가지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군은 지난 해 2월 도시재생 뉴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오는 2월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나섰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임실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주요 역할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이다.

위탁운영비는 2억원으로 위탁운영비로 3명의 활동가가 상주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게 된다.

센터의 위탁을 위한 응모 자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 또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추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이달 29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차 서면평가를 거쳐 2차 심사위원회의 면접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관리운영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협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군에서는 2월 중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공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농촌지역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이 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행랑채 철거사업 전국 첫 시행

총사업비 4억 8천만원 투입

순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행랑채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 6 13 지방선거에서 농촌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된 행랑채 철거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4년동안 300동을 정비하는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첫 사업으로 75동 정비를 위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동안 행랑채 철거는 본체가 없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마을경관과 주요도로변 관광지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농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군은 행랑채 철거에 대한 4개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일 각 읍면에 시달했다. 일반 행

랑채는 8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는 180만원을 순수 군비로 보조 지원한다.

참고나 축사는 자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행랑채 철거 신청 대상은 33㎡ 이상이며, 우선적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철거가 시급한 행랑채가 1순위로 철거된다. 다음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본채 옆 방치된 행랑채가 2순위가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행랑채 철거 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주거공간 조성은 농가의 재정적 부담해소와 클린순창 실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랑채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읍·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신청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친환경농업분야, 50억원 전폭 지원

임실군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농업정책의 전면에 앞세우며 친환경농업 정책을 크게 확대, 추진한다.

군은 올해 친환경 농업 관련 15개 사업을 추진, 5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업별 예산투입액을 보면 토양비옥도 증진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1만

6,220톤에 16억 8800만원을 논 유효규산 함량 증대 및 밭 산도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2,780톤에 6억 7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쌀 육성장려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을 지원한다.

심민 군수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쓰겠다"며 "돈 버는 농업, 함께하는 희망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국정구의 신홍강호로 순창군이 정구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순창서 유소년정구대회 개최

오늘부터 26일까지 실내다목적구장에서

한국정구의 신홍강호로 자리잡은 순창군이 올 한해도 정구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있는 정구메카로써, 성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까지 다양한 계층의 정구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순창군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실내다목적구장에서 제60회 전국유소년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정구연맹(회장 권화선)이 주최하고 전국정구협회(회장 신동식)가 주관한다. 이번 정구대회는 1959년에 어머니들이 자라나는 정구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 한다는 취지로 제1회 전국남녀중학교 1,2학년 정구대회를 개최해 올해로 반세기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3조 대항)은 남녀 초등부(5학년 이하), 남녀 중등부(1,2학년)경기가 열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다. 개인복식은 남녀 초등 4학년 이하부, 남녀 초등 5학년부, 남녀 초등 6학년부, 남녀 중등 1학년부, 남녀 중등 2학년부가 진행된다. 개인단식은 남녀 초등 6학년부, 남녀 중등 1학년부, 남녀 중등 2학년부 경기가 열린다. 전국 초·중학교 47개팀 500여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개인복식, 개인단식 4,5,6학년은 2019년도 끝나무선수육성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으며, 올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순창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구종목 전초전으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을 정비하고 난방기 등을 최대한 설치하여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28일부터 6일간 2019년도 전국초등학교 테니스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작년 구조구급활동 실적 발표

남원소방서가 지난 18일 2018년 자체 구조구급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이송건수는 1.6% 증가한 5,859건, 이송인원은 1.4% 증가한 6,023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1일 기준 16건 출동에 16.5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발생유형별 이송인원은 질병에 의한 이송이, 여름 시기에 이송한 인원이 1,732명으로 이송인원 중 28.8%를 차지했다.

출동건수 0.3%감소한 2,287건, 구조건수 2.2%감소한 1,478건, 구조인원 7.5%감소한 396명을 구조, 1일 기준 6.79건 처리, 1.09명을 구조했다.

조용주 서장은 "구조구급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남원시민 뿐 아니라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지난 18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350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형완 지방청장은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 건수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보절면 주민소통 간담회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은 신년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와 심상생생 건강체조 교실을 찾아 대화하고 즐기며 격의 없는 편안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부터 2개 마을회관을 방문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선7기 남원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보절면의 현안사업과 올해 마을의 숙원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한편, 허관 보절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 해주셔서 감사하며, 현장에서 들려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 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교육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경영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육성을 위해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은 경영역량을 키우고 의식개혁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인 기본, 심화, 후속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경영진단 기술교육,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지원, 농업기술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현재 남원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희망지는 1월 31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창의적, 자발적 노력으로 경영역신을 이뤄내는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